

續三綱行實孝子圖





57  
7735

新編續福

왕중의 덕을 본 사람이  
부끄러워하여서  
왕중의 덕을 본 사람이  
부끄러워하여서

왕중의 덕을 본 사람이  
부끄러워하여서  
왕중의 덕을 본 사람이  
부끄러워하여서  
왕중의 덕을 본 사람이  
부끄러워하여서  
왕중의 덕을 본 사람이  
부끄러워하여서

續三綱行實卷子圖

王中感天本朝



王中砥

被衰麻日食飡粥旦夕哭奠水漿斷絕衣絮則無水浚井四丈餘不得泉中環井再拜額天泉乃湧出鄉里以為孝誠所感洪武間表其門

**圖**朝脯哭奠守齋廬飡粥三年廢抑純孝固知天性耳平生不識一行書居廬無水董明掘井其如不見泉再拜倏然波湧出至誠感能彼蒼天



주병이 노부암사방의  
 다름이 초시를 험기 되  
 지르 이 초도 하야 치을  
 여 용파 앞 총나 조 순의  
 보물 데에 그 르되 아나  
 된 니 영의 과 병 다 만 거  
 노 주병이 슬허 하 본 허  
 본 어 캐 몸 으 로 뒤 신 한  
 아 죽 거 저 하 후 터 라 영  
 이 눈 놀 더 그 기 유 허 그  
 자 하 거 본 슈 병 이 소 도  
 르 었 다 가 못 하 마 더 무  
 험 원 한 다 니 후 연 한 불  
 나 캐 집 의 든 어 모 나 본  
 잘 아 영 의 불 만 이 이 병  
 이 도 한 가 마 었 조 하 후

周炳教様



周炳舞陽人事母焦氏至孝溫清定省無遺禮母嘗病  
炳哀踊顛天頭以身代母又思捶肉炳四出求之不得悲  
痛愈切忽有鐺入其室殺以啗母病愈事聞洪武中旌表  
其門

**圖**病在阿嬈痛在身計心稽顛顛蒼昊有身百死兒何  
惜願以兒身代母親 母患沉病欲食鐺四求無得痛  
中賜忽然入室應神呪一獻高堂躋便康



今正刊  
世古  
不丑古

趙娥酒泉人父安為同縣李壽所殺娥兄弟三人同助  
死娥自傷父誓不報乃轉車袖紉白日刺壽於都亭南徐  
請縣顏色不愛曰父誓已報請受訊縣長尹嘉欲誅法縱  
娥不肯去強載還家會赦得免州郡嘆賞刊石表閭  
父仇未復弟兄亡子立孫娥痛自傷袖刃轉車謀甚  
武都亭白日快逢場報仇伏法自心甘義氣磨空直  
百男縣尹餘他仍會救州閭避事入叢談

부인후는 하양시흥의  
 리나히이 흥인리의  
 복성나미시모의거  
 문제나구

仁厚廬墓書



尹仁學河陽人年九歲遭父喪廬於墓側 恭定大王朝  
事聞旌聞

親亡哀毀是天孫盡禮今聞九歲兒三載結廬居墓  
側孝誠如子最堪悲 孰非人子孰無親世上稀聞孝  
行純況有釋兒能守塚高風百世更誰倫



尋  
三刊  
六到  
外

姜廉安達人永樂中父淮祖嘗患便澁不通廉棄官侍病  
手奉溷器四年不輟至嘗糞以驗吉凶父又患癰醫云水  
蛭吮血可治時方寒涇廉就湖上呼泣鑿冰求之忽有水  
蛭數三附手指而出持以吮其癰父病即愈壽至九十五  
歲事聞桂閣

**圖**休官手捧溷便器甜苦安危濡指知自是為親誠感  
物扣冰求蛭應如期 涇寒寧料冰間蛭吮血救功父  
病瘥畢竟強康躋上壽一生誠孝格皇天



이와함산원호의의

이와함산원호의의

이와함산원호의의

이와함산원호의의

이와함산원호의의

이와함산원호의의

이와함산원호의의

이와함산원호의의

이와함산원호의의

이와함산원호의의

德宗皇帝



曰은히호되늘거히  
 상을대며보고면상  
 리라古어담년제  
 이고보오되아미  
 전위무러두고  
 짐의편안하이  
 아공하로가공  
 明辨이반두  
 알리가을두  
 도리우할히  
 의상.의안  
 은공.은  
 의.의  
 의.의  
 의.의

金德崇鎮川縣人常宰韓山郡念定省父曠棄官而歸承  
 順色養至誠無怠年六十二遭母喪廬墓三年每朝夕奠  
 訖必必背於父雖雨雪不廢服闋不離父側奉養彌篤  
 往憲大王嘉其誠孝 特賜酒肉未父亡又廬墓哀毀骨  
 立時年已七十二鄉黨以衰年執喪必至傷性止之德崇  
 泣曰父瘞於野子安於家吾所不忍晨興必哭于墳前至  
 於終喪哀慕益切見父母平昔之座輒哽咽敬之如在又  
 於祠堂晨夕必拜朔望必登時物必薦有事必告而後行  
 及其歿 命官其二子立碑於墓以旌之

園晨昏念切棄官歸色養平生志莫違為母居廬仍首  
 父朝哺奠羅拜建闈 父埋於野忍家居七十遭喪又  
 守廬哀慕終身情益切墓前碑表聲州閭

정월한구노광유사공  
 이라다수서리아비죽  
 모라서연이죽거늘  
 아비와호되못고여섯  
 휘를시모호외해복빛  
 희아니후미사오나온  
 밤에물만아시고노모  
 프실파을업디아니후  
 프손조격된의차반임  
 글미사공두려알을취  
 니너디아니후야내너  
 두리거상디법고호변  
 도집의가디아니후니  
 후전후유외엇조와날  
 흥요해노부

韓述疏食本圖



生負轉述廣州人五歲父歿及長喪母合葬父墓居廬六年不脫經帶蔬食水飯不食菜葉躬執奠饌與人言未嘗啓齒泣血終喪一不到家正統中事聞旌聞

者十百人中僅有之更堪扶柩合先塋血淚三年一倍并菜葉辟來過半紀只將蔬食取迓生

안장평이 노장평사동  
 이라아위거남남어시  
 드삼년살더노본의신  
 고을면디아니후머술  
 히홍물내애더우후더  
 리엄이오래형드러꺼  
 리밧다못후어니하부  
 러부러위선리후기논  
 점형이제머피을골어  
 임피어리의다하그니  
 을유루모노후더니호  
 빛의도우음을알노취  
 후어대현을알모더너  
 수거논시모할머슬히  
 할이은본디상구피하

正命分張圖



安正命昌平縣人嘗居父喪廬墓三年不食菜葉屢過  
禮母病沉綿久廢梳櫛苦蟲繁癢問三命欲分癢散其髮  
承接母首以分其蟲又嘗糞以驗吉凶及毀守墓哀慕一  
如前喪

**○**吾親遺體卽吾軀疾痛初無彼此殊散髮為分蠟燭  
癢一生誠孝激頑夫 父亡哀慕為居廬骨立三年斷  
菜蔬母病又能嘗糞檢執喪悲瘁一如初

박연 주공의 명산 사육의  
사후에 절친한 친구 아비  
를 보다가 나모의  
고향 땅에 다나아미법  
의 제자 되고 가나모의  
취원 손으로 아비법을  
그을 호는 으로 낮을  
부르어 법을 받고 고미  
꽃처럼 이여 두 번 부  
가 아비 손에 들려서  
나모를 데리고 아비  
를 보라

庭守劫虎



朴近守靈山人年十四歲隨其父入山谷伐木為田其父  
為席兩攬地守左手執父足右手揮鎌却席迨曳數百步  
許得父屍而還景泰乙亥旌表門閭

**國** 韓年隨父入山深叵耐於菟稔禍心倉卒嚴親遭持  
噬誓將禦血濺平林 揮鎌追走自忘生猛獸猶知避  
烈誠畢竟得屍昇到室鄰聞千古樹風聲



김국인의 문필의 시문  
 이라 함은 지극히 호로  
 유명하니 인이 위하야  
 무릇 생이 아비 위하야  
 무면은 맛보며 시포를  
 여섯이 불사던 나병의  
 후덜덜의와 사이치기  
 불쾌하고 무로온 것을  
 죽의 일의 되 짐을 생치  
 고스라라 아비 황홀한  
 이기니 생이 위 아비 사  
 라이 생이 위 아비 사  
 죽니 고루고 될 거울  
 오니 무면은 감 심어  
 스구구 불사던 나병

克一馴席木園



金克一金海人性至孝為母吮疽為父嘗羹前後廬墓六  
年有帟乳於墓傍取祭餘飼之如養家畜父有賤妾二人  
事之如父生時及死並服期年天順甲申事聞旌門  
六年廬墓孝心純墓側終教乳帟則吮疽嘗痛神明  
鑑異類還能感至仁愛父深情父不棄推誠諸母服  
喪期天教馴帟彰純孝萬古羹倫作範規

千...의...한...을...의  
 다...로...위...하...여...호...  
 시...요...사...터...나...호...와...불...  
 지...어...무...됨...일...터...나...호...  
 에...又...은...소...위...및...이...불...로...  
 나...근...됨...이...사...하...고...있...는...것...도...의...  
 고...문...을...지...고...무...됨...이...하...  
 주...무...로...오...나...자...를...이...호...  
 의...호...성...을...감...을...하...야...그...  
 리...다...가...터...라...고...는...호...수...와...호...  
 문...과...고...배...술...이...사...나...  
 千

梁柳感席本圖



梁郁山陰人為父母廬墓六年嘗擔土負石營其墓一夜  
墓後有聲如雷見大角擲地轉三大石至墓側人以為孝  
感所致事聞旌閭賞職

**註** 擔土營墳最可哀山中一夜響如雷由來至孝多奇  
應猛獸能移大石來 轉石傳奇古絕倫於菟猶識孝  
誠純光陰奄忽情何盡前後居廬六過春



別侍衛黃信之高城人孝誠純至母年七十九疾革氣絕  
信之抱持踰天乞命至三日乃甦後十一年而殘疾全盡  
誠哀慕終身事聞再授官不至

○慈母年深病不瘥抱屍三日但踰天純護然被蒼蒼  
感餘命還逾十一年母病踰天死更生自然純亦格  
神明盡誠喪祭終身慕豈是區區為爵名

丁未年江陰縣志卷之四  
 中興縣志卷之四  
 丁未年江陰縣志卷之四  
 中興縣志卷之四  
 丁未年江陰縣志卷之四  
 中興縣志卷之四

邦祭中後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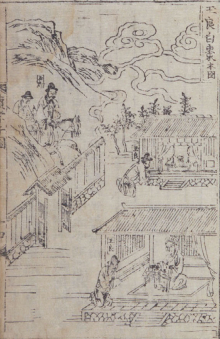
金邦際星州人連遺父母喪又代祖父喪凡九年廬墓一  
不到家事聞姓聞

**圖**連哭簞爨祖又亡結廬墳側九星霜終喪不踏運家  
路留得聲名萬古芳 一心純孝揭桑倫至性應知出  
衆人名徹九重蒙獎義窮聞樹表錄千春



념을 방이 조침 가신들  
 이라 하얏던 곱고 언덕  
 나 일행이 저우 언덕으로  
 드와 면승한고 본향의  
 가림이 울음영영호미다  
 업이 죽어 조침과 함께  
 제수 올테니 심고 미수  
 당애 앓음나 조침의 호  
 불중도 동호나 수향 것  
 뒤의 언덕에 다 부를 곱히  
 혼연이 나니 조침의  
 날오면 본향으로 가리  
 다스리다

三 良白東家本圖



鄭玉良三嘉人仕為河陽縣監性至孝棄官歸鄉里奉養其母母殘棄祭以禮家廟朝夕上食終其身廟傍忽生白棗七株人以為孝感

**謝官歸報母恩深**一事存亡罕古今沒彼長勤朝夕  
供祠違異木白森森天公皂白太分明廟樹應知感  
至誠生養死喪猶未足棄殮沒世罄餘情



今之晉州民女年十二從母往鉤山田母為席所擢今之  
一手執母一手執鋤撲席大呼至百黃許席乃去收屍置  
其家徹夜抱哭賣衣買棺而葬事聞於閭

**國**暴帝曾聞古所危女兒十二况能茲一呼倉卒回瘳  
惡始信至誠天易知稟得乾坤正氣全盡於哀禮在  
誓年憑茲可卜於身事堪恨時無野史傳

只在上江自製外器の  
 年十のり昔已初のり  
 のり製器のり製器のり  
 西書外器のり年十のり  
 年十のり製器のり年十のり  
 年十のり製器のり年十のり  
 年十のり製器のり年十のり  
 年十のり製器のり年十のり

漢老堂荆水園



田漢老石城人年九歲父得世痢漢老嘗奠及殓廬墓三  
年不食鹽菜十三歲母歿亦如之事聞特授司馬

**陸**父幼嬰疾療無方聞黠兒誦取董嘗忽抱終天成毀  
齊髻年廬墓更堪傷除喪未幾又罹憂前後居廬六  
過秋鶴行正堪光孝理按官應為激頌

다 주면 이 논기 창상  
 이라 나히아 흥인재아  
 비사모나 문밖의 티문  
 손사막을피하여 었  
 심익이나 명이 도하니  
 라 옛 조와 논 흥은 배나  
 라

祿  
 遠  
 瘞  
 父  
 本  
 圖



李祿連居昌人年九歲父得惡疾斷手指和藥以進病愈  
事聞旌闕

**醫** 醫戲兒童未有知父罹惡疾苦難醫將刀割指和藥  
進便覺沉疴忽爾離 維云愛父是良知幼有純誠配  
最奇瘳疾莫言由藥力神明應感九齡兒



古을기노창상사들의  
 고설을에침분이나개  
 립이디이뜻가본아비  
 별을야노이나디뜻하  
 터니을시불에두하모  
 디가아비집어머다가  
 부제복에다죽으나라  
 및곳과본할주시고후  
 문에디우

乙時百父本國



金乙時昌城人城中失火迨及其家父病不能起乙時直  
入火燄中負父而出父子觸火俱死事聞賜粟旋閭  
禮祝融回祿遽流殃父病倉皇未下來直觸鬻攸扶負  
出力窮同楚事堪傷烈燄人知不可干天倫情至赴  
無難扶携父子甘同命此事今從畫上着

一 朴道 朴道 朴道  
 二 朴道 朴道 朴道  
 三 朴道 朴道 朴道  
 四 朴道 朴道 朴道  
 五 朴道 朴道 朴道  
 六 朴道 朴道 朴道  
 七 朴道 朴道 朴道  
 八 朴道 朴道 朴道  
 九 朴道 朴道 朴道  
 十 朴道 朴道 朴道

二 朴道 朴道 朴道



朴云昌寧人年十四其弟云山年八其父為申所攬云持  
小斧與云山追至三十餘里呼天大哭申乃棄之云負屍  
云山執斧以隨事聞旌問

**圖**郎羅蒼黃帝攬傷兩兒呼叫逐奔忙弟隨執斧兄扶  
負死骨終於地下厥大兒十四小兒八義氣堪居汪  
跨前力拒於免救又莫察然餘烈照青編

思用播土本圖

전수용이노정음사  
이각나히일부한연  
과그로음의의물물  
의우정일이타나몇  
와그호음해이과

思用播土本圖



全思用井邑人年十二母歿擔土石成墳事聞旌閭  
**園**膝下孤兒仰母慈母亡其奈棄如意子兒身弱捨  
土至今聞者不勝悲 人生自有愛親心 捧土如渠孝  
更深闢風可使頑夫立 畫上新編照古今



金龜孫賤諱也居開城府幼失母既長哀慕作主朝夕祭  
之事父及後母盡孝父嘗患腫甚苦龜孫吮之得愈及疾  
廬於墓側每朝夕奠罷來省繼母審視饌具選其廬如是  
三年不報事聞旌闕復戶

關覺與年俱念母幼追哀作主奉盥哺吮癰醫父救奇  
効賤諱如渠更有無父殘居廬擬士喪葬殮日上聞  
三霜孝誠隨處渾無缺奠罷歸來省後娘





古風詩集卷之四  
廿五日

崔叔咸，稷山人。居咸悅嘗大疫，母疾篤，父兄諸弟皆避叔咸。獨侍藥嘗，毋糞而苦，毋果愈。後母歿，父欲令與子女土田，咸獲叔咸皆占。嬸薄老，衰者餘皆推與。兄弟鄉人稱之曰：「度黔妻薛包之行，千載景仰，况一人兼之者乎？」

**薛包**自視吾身，毋所遺，忍因疫癘，敢違鄰。孜孜湯藥，仍嘗煮精感神明，病自醫。純孝堪嗟，等度黔分財，又似薛包。廩二人千載俱起，卓何況君身却兩兼。



卜聞文全州人居父母喪前後廬墓六年夜毀過禮骨立  
成疾喪畢圖父母形朝夕上食至誠無怠事聞表異  
**禮**茹哀毀瘠數乳哺六載居廬整至誠服闋未堪追慕  
切為圖儀像翼思成永辭怙恃泣昊天骨立憂然疾  
病纏肖像朝脯供饒食思親終始此心專

남 누인의 노동니심은  
 이라나히귀여워아비  
 죽거노침이관한호의  
 임이호양호호호호호  
 호티나임이죽거노시  
 묘삼년산후에아비물  
 업의분포히티현장호  
 그노삼년시묘호니대  
 되기상호아호호호호  
 으니라맛초와히호의  
 무산개에에노물이호  
 려나와도전호다가두  
 인이시묘박애와모고  
 그침심원호호도를함보  
 호야차단호호만후에  
 잇다함미유과발과학  
 물가되다카수티다

得仁感德



卷之四  
四十一

金得仁東萊縣人幼年喪父家貧養母至孝母歿廬墓三年後遷其父墓于母塋又居三年前後居喪九年值年飢釜山浦倭奴四散剽掠得仁廬感其誠孝嗟嘆而去後以海菜米香遺之 康靖大王三年時授豐儲倉副奉事

**諱**喪父惻惻奉母親慈顏見背更誰因仍遷舊塚同塋  
葬九載居廬備苦辛 海寇過廬遺米香因應純孝服  
頑強聲名上徹宸旒隨積善終然荷寵光

최우영이 노닐 유사공  
 이니 병의 침하연의 다  
 니산알에 쉬사되나 엄  
 이을지극히 호도하다  
 나죽거논시모하야 흰  
 하나무지여재물업다  
 떠나거상할호호어영  
 당짓보상그림우고물  
 뒷시정거시어은반두  
 시몬리稱호호호심어  
 지극하타라잇조와함  
 호은문고부호호호나  
 위동위비호호호호호  
 위부호호호호호호호

友朋純孝圖



河友明晉州人領議政演之子居仁川府蘇來山下事母  
李氏至孝及歿廬墓親負薪供祭夜旱造影堂凡御物必  
先寫孝誠純篤事聞旌閭復戶官至同知中樞府事  
[圖]孝心純至早知名母歿居廬若事生門闕未應無僕  
後負薪但欲盡吾誠服終追慕耿難忘想像儀容立  
影堂隨飾薦新誠孝篤至今青史永流芳





시다 善明口아 비서니  
산천을 구하하니 善니 善니  
선지 善지 善지 善지 善지  
선지 善지 善지 善지 善지  
선지 善지 善지 善지 善지  
선지 善지 善지 善지 善지  
선지 善지 善지 善지 善지  
선지 善지 善지 善지 善지  
선지 善지 善지 善지 善지  
선지 善지 善지 善지 善지

慶 迨清州人性至孝其父有疾隆寒思食鮮魚迨持網入  
水得二鯉以進病愈後二親歿廬墓前後六年奉祭祀一  
依家禮與其妻子自割烹隣里皆化 康靖大三驛召行  
見於宣政殿慰獎之特陞四資拜司宰監主簿未幾出為  
尼山縣監吏民畏愛及卒邑人備築需油蜜以遺其妻妻  
曰何最累吾夫清德皆不受

**王** 祥之後有斯人凍網連登兩錦鱗六載居廬誠禮  
盡一鄉歸厚自吾身 九重召對寵無倫百里仍釘累  
綾新死後絲毫終不受一家清德更夫人

문공이 노승과 노승의  
 뒤라 자는 제 불림이며  
 이 형기 문공 장호로 호  
 이 농이 묘호음식을 주  
 여든 반 두 시 품이 다 가  
 이 밧더니 조라는 명일  
 이 어는 반 두 시 품은 일  
 은을 한 양과 가와 버  
 려게 현유 향의 나 아 버  
 다 이 노승을 노승과 노  
 도금이 슬허호를 배의  
 나 노승과 노승이 불거  
 의 거를 못 후 거 노승은  
 아 밧더니 나 아 나 호  
 여 전 부 노승의 노승이  
 여 전 허음씩 임 그 노승  
 전 두 시 밧 반 두 시 밧

趙錦獲鹿本圖



古詩曰交世以行其  
而古り又主あし舎い  
是の量は是があはり  
斗ははりの喜はれ  
はははりなり

趙錦春川府富昌驛吏也自幼事親至孝人遺異味必懷  
而獻之及杜節日必上壽邀鄉黨父老以助歡父年七十  
二而歿錦哀毀過禮母老不能起居錦不辭側扶持起卧  
親執餅具必有甘旨嘗欲上壽忽有鹿至門獲以洪之威  
化十一年旌門復戶

**國**為供甘旨奉晨昏節日開筵薦壽尊一念自然能感  
物門前有獸忽來奔純孝終身慕未衰從來誠感亦  
天知蒸然野鹿來投死政是高堂上壽時



徐萬木川人事父至孝月朔必具酒饌以奉父嘗得疾欲食魚時方寒沍萬叩冰祝天有四魚躍出持還以進父病即愈後父歿廬墓三年躬具奠饌一不至家成化庚子事聞命授官

**圖** 孝 養 何 曾 一 日 衰 微 軀 方 寸 有 天 知 叩 冰 忽 有 寒 魚 躍 父 病 寧 須 藥 石 治 生 盡 誠 衷 後 豈 哀 居 廬 三 載 絕 歸 來 親 調 奠 饌 供 朝 夕 忽 有 除 書 到 草 萊

應貞橋天本園

應貞橋天本園  
此園在應貞橋之北  
園中有一古松  
其葉如針  
其幹如龍  
其皮如鱗  
其根如爪  
其葉如針  
其幹如龍  
其皮如鱗  
其根如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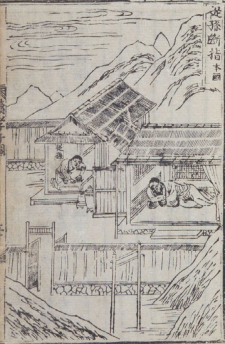
生自姜應貞晉州人。中樞毅之子。年十七。母遘疾。數月不瘥。父又患病。應貞常侍藥。衣不解帶。遠瞻不寐。取糞嘗之。焚香禱天。請以身代。及父母相繼而歿。廬墓凡五年。不食酒。果。葷菜。葷葷。過禮。杖可後起。事聞。旌闕。

**圖** 遑遑侍藥。日焦煎。夢不需。床目不眠。稽首禱天。天僕詳。將身代父。入黃泉。從親連逝。可如何。五載山廬。不到家。酒醬菜葷。都不食。古不純孝。孰能古。



수종은 이 노봉이 창고  
 신근의 아들이다 하니  
 영종은 이 인제이니 사도  
 다은 병을 이리 보게는  
 석의 을 피하여 에 창고  
 의 인제 아 비 병이 도호  
 니라 옛 조와는 호종이  
 고 근 영종이 다

從孫斷指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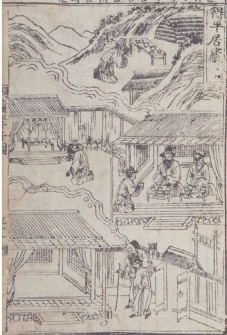


王從孫東萊縣吏石根之子年十一父得惡疾自斷手指  
和藥以進父疾乃瘳事聞旌問免役

**國**斷指醫童孝性純唯知有父不知身誠感自能醫父  
疾豈徒方藥驗如神一拈之傷痛豈堪兒能自斷若  
心甘誠深不恤身對世有忘親亦小慚

전수교유령의근동다  
 사공이내재아비는물  
 못모기늘나머늘제위  
 양모들머음집은반도  
 시친히이뵈티나어배  
 이두날스이애니어중  
 겨늘살원시표살고업  
 이위후야는살원전살  
 님은나라수당해맛중  
 나조외제후녀나갈제  
 고호고도라라외요을  
 살제又티승티라후은  
 기미어였노라노후은  
 해니라

得平居處



進士權得平豐基人其父失明出入常扶持飲食必親奉  
父母數日連逝居廬三年為母又服齊衰三年家廟朝夕  
上食出告反面如生時弘治己未事聞旌闕

聞父喪其明痛莫醫尋常出入輒扶持平居食飲皆親  
奉猶恐斯須子職虧 旬日雙親疊見違山生無路報  
春暉六載守廬心尚歎朝晡家廟薦甘肥

응지 필참관의도심  
 사문이라디물취부  
 鄭門의아문이라려  
 관음의후야필하및고  
 관음의이구하호도물  
 터니부외죽기늘각수  
 사해못고시요살어술  
 의홍물터다이하야맛  
 장나조제물을천하업  
 구라비루키물식기다  
 문중을맛터다이하  
 鄭門의아문이라려  
 양산망해만두시무림  
 의구피고쓰려질수의  
 천하을나려구라제물  
 무물새구라이하호도

鄭門世孝本圖



문계물이 아니겠더나  
但

상상한대홍대사공이본  
오의를과회다문다후  
더라홍의갑주에연산  
군이거듯한심이라후  
지고죽이신대아표유  
신이그진의승은바히  
리나아비죄업시공은  
조운을이비겨가승부  
들여오표은식물이나  
덕고죽으니들은사살  
이다칠원후이라금  
상이주위호사대행은  
무엇부조고의리할공이  
고고공은세나하

承旨鄭誠謹晉州人知中樞府事陟之子少登第有節操  
天性至孝父母歿合葬于廣州廬墓終喪哀毀盡禮朝夕  
必親具奠饌雖滌器之微不委僮僕後為官雜務劇每遇  
朔望必詣墓省掃親執饌供祭一如在廬時終身不息又  
為康靖大王心喪三年人謂忠孝兩全縵山甲子以為  
詭行殺之子舟臣時為承文院博士慟父非命涕擗不食  
而死聞者莫不傷痛今上即位贈誠謹吏曹參判旌其

**書** 親亡誠孝父彌敦又竭心喪答 主恩天禍善良同  
殄瘁斯人未免一何寬 遺孤痛父籲蒼玄不惜捐生  
報所天萬古綱常懸日月幾人忠孝一家傳

나 조희는 은산사람이  
 과거문과부터 이바의  
 문호로 향하였으나 조  
 문안을게을이 아니후  
 야권하방지어이바두  
 어시절첫머티름이박  
 락니야비류가조문하  
 향을머티름두후유가  
 상으로로부족의의은  
 이죽다조희의후의  
 락

남정. 평왕과 상영상원  
 거상남이문장고나디  
 아나함의술고디아  
 승의소공장수물과실  
 문의고유니하디라  
 관료의의비술의

自學堂 寺 宗院



며 흥은 배엿더니 갑  
년애가 못 힘질이라  
아 죽이려되 왕거논다  
짐을 호되 남을 위하야  
다 상호미 일흥어늘며  
후조종이 아니라 남을  
파아비와 호가지로너  
다 호미라 호고 품용의  
주거논모다 슬허호러  
라

李自華 蔚山人自少事親孝定音不懈朝夕必躬爨以供  
每遇時羞必獻父殘衰數過禮啜粥終喪母歿亦如之為  
康靖大王服喪三年閉門不飲酒不食葷醬菜菓燕  
山初賞職姓門至甲子以詭行捕鞠持戮之自華供曰為  
君服喪非為要名妾料君父一體耳遂從容就死國人莫  
不傷痛

**圖**事親終始竭心誠况服君喪出至情俯仰人天無愧  
作托遭凶禍亦為榮 誰言忠孝兩全難能以君親一  
體者已盡為臣為子道高名千載重於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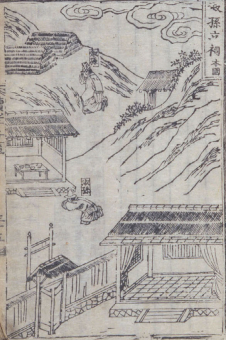
구경...  
神집...  
아...  
비와...  
하

正兵羅有文丹城人燕山末母死時短喪法嚴人不敢違  
有文獨守喪執禮謹鄉中親戚皆言禍且不測勸脫喪有  
文竟下從因哀毀感震臨死語妻曰三年祭毋如我生時  
朝夕無怠且美我於毋墳之側其妻李氏如其言親祭母  
及夫墳雖雨雪不廢

**國**短喪嚴法世無違特立斯人古亦稀持服晏然哀毀  
死秉彘何幸在寒微 臨終一語托家人母子期將地  
下親躬莫不緣風雪廢三誠夫婦兩無倫

김유선이신권사공  
 이라어비의공상어다  
 시묘를상탄의살고달  
 공으로부도추공과장공  
 이다어고공의부남  
 빛뒤수당저어두고말  
 충나추의권호을한지  
 의의공과나히어고  
 공으로부도공로게을의  
 아고공의부도공의

孫古祠本圖



金淑孫信川人父母喪皆廬墓三年服闋猶不食塩醬立  
祠墓側朝夕上食一如生時年過八十未嘗小懈事聞姓

閱

再罹憂制闋還悲癯飯無塩更自持因廬立廟勤香  
火日奉饗殮八秩竒立祠塋域是居廬俯就常情每  
有餘直過八旬生事死當時國論已旌闈



鄭繼周安岳人少喪父事母孝出告反面定省溫清不火  
懈及母歿廬墓三年又為父追服三年俗節四時忌日祭  
必哭泣誠孝至老彌篤事聞命按禮賓寺參奉旌其門  
**圖** 稚年父逝痛難追事母終身罄孝思溫清更能勸定  
皆至誠終老報恩慈齊衰三載侍幽堂追服前喪又  
二祥泣血虔誠供祀事旌閭褒爵永流芳

續三綱行實忠臣圖目錄

孫炎不屈

易先守塚

何忠罵賊

云華討賊

金同話主

深源斥姦





孫亮이 조수 유수의  
 群臣을 다 미안코의는  
 을 잘 하라니 때 명제  
 왕의 형제들이 이 신상  
 을 들은 일로 유수의  
 후디라 전복을 해하  
 국을 속차사 호해유공  
 공거노병을 俸去하  
 손을 가외의 나 노친의  
 所장회의 하부공하  
 領하거노는 영의 2장  
 件 짓고 항부디 아나  
 거노도 적의 노후야  
 을 해야 못술머 소라  
 지근대 손연이 불오  
 이 못손을 아 주신거  
 지라 벗 못하리 랑

續三綱行實忠臣圖  
 孫亮不屈本朝





역원이... 생을 삼공의  
 과 명을 취하며 이르되  
 허약할 수 벼슬을 잊지  
 나르지 만 후야도 취이  
 일...의 거...의  
 불...의...로...하  
 아니...의...우...  
 허...다...식...이...  
 ...  
 ...  
 ...  
 ...  
 ...

易先守城本朝



易先湘陰人永樂初由大學生高等選授交趾諒山知州  
進交趾按察使仍治諒山宣德初交趾叛賊攻城先  
不回嬰城固守報盡闔家同死事聞遣官諭祭追贈廣  
右叅政

**圖**孫城薄賊竟難全杜志猶能守益堅食盡舉家同日  
死執今義烈映秋天許國丹心獨自持貼危無計更  
能支但知臨難全臣節豈料重泉寵錫隨



이야가...  
호문...  
독...  
라

何忠江陵人永樂間中進士拜監察御史諫言正色隆文  
趾政平知州專尚德禮夷民懷服交趾叛忠在園中薈  
大臣謂忠有才智膽略使乞師於朝忠絕城出遇伏被執  
罵賊不屈死事聞旌門謚忠節

**德**死節當求敢諫中心專許國除夷同治州更見民懷  
德遇賊終能不失忠 蒼黃當日在園中膽略推君獨  
擅雄經出乞師身被執臨危罵賊果鄉同

차운현이노인명사동  
 이라명하도니시위  
 권아오시남으로라트  
 리근류용기저고반후  
 거근차운현이구형전  
 의근관으로리미꽃차  
 가리니종형사동명후  
 일과부명수동조구와  
 남형사동학형장으로  
 라노라도차와가들의  
 가의미은호를은을의  
 여년우고사함여와  
 오시반이을함여의의  
 보되리니권해와재의  
 사름이와사름이가나  
 라차운현이노명후명  
 으로라노리종형사동

云華討賊本圖



근수를 들이므로 아물던  
은마가 이신꺼니 시의  
글로 호여 수이 나오디  
뜻호리라 맛초와 회요  
손이 뵈호부니 시의 개  
가니 장은 회이니 시의  
고 잡히어 평후영까지  
귀와 마친 장이 가다 단  
원후에 보니 의호호니  
라 후에 주기를 여 두니  
다 관호호하니 다 나호  
고 머리을 보오 함이리  
다 나호 하호 하호 호니  
유공신호이시고 티호  
수호은 다 당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車云革會寧人成化丁亥李施愛與其弟施合據吉州以  
叛 惠莊大王命龜城君浚討之云革以軍官從與鍾城  
人鄭休明富寧人曹糾鏡城人朴成章入賊中曉諭逆順  
執施合及其弟施伯縛送官軍中路為其黨共解脫去云  
革又與休明率鍾城會寧兵截磨雲嶺賊軍歸義者絡繹  
施愛以此不得長驅而東會崔閔孫叛附施愛云革為施  
愛所執與休明糾成章俱死端川獄中賊平得其屍皆不  
解拋鎖頭顱推碎 朝廷追錄云革敵愾切臣餘并贈堂  
上官

**圖** 兇醜稱兵 吉州磨雲以北骨成丘獨將忠義推鋒  
銳一死英名萬古留 切如張許嬰城日忠似顏素罵  
賊時乘勝官軍齊致死朔方尚有四男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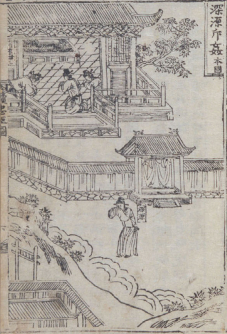
金同宗室江寧副正棋之奴燕山壁妓奪棋第又欲并其  
 別舍証詐棋喉奴罵妻曰藉威勢奪人家豈長久之道燕  
 山怒囚棋及金同至用烙訊曰罪在奴非主所知或謂  
 曰汝與主異居若云不知可免同曰奴若免主必陷罪陷  
 主有活吾所不忍跪刑顏色不變曰奴死有同虫豸不足  
 惜只傷吾主無罪杖既耳其母泣同與訣曰兒棄母死誠  
 不孝然吾主在心保護毋勿悲人有飲之酒泣曰吾主聞  
 關遠謫誰為饋酒因悲咽不自勝見者莫不傷嘆今上  
 三年旌聞

壁姬謔吉利如刀奇禍橫來不可逃陷主求生寧可  
 忍蟻虫微命棄如地臨刑運嘆主無辜慰母情深孝  
 亦俱士林忠孝猶云罕况在無知僕隸徒

深源寺正心院이 보형  
 이 임원하고 초남고찰초  
 이 임원고초남고찰초  
 이 임원고초남고찰초

深源寺正心院이 보형  
 이 임원하고 초남고찰초  
 이 임원고초남고찰초  
 이 임원고초남고찰초

深源寺正心院



宗室朱湊君深源資性嚴明學問精深且有鑑識當  
靖大王朝侍從官論任元禧及其子士洪姦邪見羅士洪  
妻即深源之姑備知其父子情狀詣闕極陳其陰邪曰  
陛下不聽則終必誤國臣先伏罪不負祖宗在天之  
靈因泣曰士洪實臣姑夫臣父聞之必怒臣為國忤親  
臣切慙焉遂痛哭而出上感悟竄士洪於外至嶽山亂  
政士洪誣構深源併其二子而殺之用事十年魚肉士類  
國祚幾傾人皆服其先見恭僖大王特贈爵一品仍旌  
其門

宗室朱湊君深源資性嚴明學問精深且有鑑識當  
靖大王朝侍從官論任元禧及其子士洪姦邪見羅士洪  
妻即深源之姑備知其父子情狀詣闕極陳其陰邪曰  
陛下不聽則終必誤國臣先伏罪不負祖宗在天之  
靈因泣曰士洪實臣姑夫臣父聞之必怒臣為國忤親  
臣切慙焉遂痛哭而出上感悟竄士洪於外至嶽山亂  
政士洪誣構深源併其二子而殺之用事十年魚肉士類  
國祚幾傾人皆服其先見恭僖大王特贈爵一品仍旌  
其門

羅深宗國係安危得謹家庭分不辭便殿劇論終悟  
主羅堯自合放避陸否極奸凶勢更張寬深父子共  
罹殃旋聞錫爵他年事始信忠賢令聞長

續三綱行實烈女圖目錄

白氏盡姑

張氏負屍

陳氏剪髮

許梅溺水

劉氏投地

俞氏從死

馬氏投井

袁氏尋屍

黎哥貞信

宋氏誓死

崔氏守節

徐氏抱竹

石季捐生

仇氏寫真

金氏自經

仇音方逃野

孫氏守志

梁氏抱棺

權氏負土

金氏衣白

性伊佩刀

禹氏負姑

姜氏抱屍

呂史自誓

王今不污  
鄭氏不食

王今自縊  
李氏守信

1. 夫... 2. 夫... 3. 夫... 4. 夫... 5. 夫... 6. 夫... 7. 夫... 8. 夫... 9. 夫... 10. 夫... 11. 夫... 12. 夫... 13. 夫... 14. 夫... 15. 夫... 16. 夫... 17. 夫... 18. 夫... 19. 夫... 20. 夫... 21. 夫... 22. 夫... 23. 夫... 24. 夫... 25. 夫... 26. 夫... 27. 夫... 28. 夫... 29. 夫... 30. 夫... 31. 夫... 32. 夫... 33. 夫... 34. 夫... 35. 夫... 36. 夫... 37. 夫... 38. 夫... 39. 夫... 40. 夫... 41. 夫... 42. 夫... 43. 夫... 44. 夫... 45. 夫... 46. 夫... 47. 夫... 48. 夫... 49. 夫... 50. 夫... 51. 夫... 52. 夫... 53. 夫... 54. 夫... 55. 夫... 56. 夫... 57. 夫... 58. 夫... 59. 夫... 60. 夫... 61. 夫... 62. 夫... 63. 夫... 64. 夫... 65. 夫... 66. 夫... 67. 夫... 68. 夫... 69. 夫... 70. 夫... 71. 夫... 72. 夫... 73. 夫... 74. 夫... 75. 夫... 76. 夫... 77. 夫... 78. 夫... 79. 夫... 80. 夫... 81. 夫... 82. 夫... 83. 夫... 84. 夫... 85. 夫... 86. 夫... 87. 夫... 88. 夫... 89. 夫... 90. 夫... 91. 夫... 92. 夫... 93. 夫... 94. 夫... 95. 夫... 96. 夫... 97. 夫... 98. 夫... 99. 夫... 100. 夫...

續三綱行實烈女圖

白氏畫姑本圖



白氏太原人夫棄家為僧白氏留養姑不去勤績繼以供  
租賦夫一日還迫使他適白氏斷髮誓不從夫不能奪姑  
年九十殘竭力營葬盡姑像祀之終身  
園郎棄天倫妻奉姑晨昏澣澣色怡愉一朝非理還相  
迫斷髮終身志不渝可憐姑氏又辭堂竭力經營事  
克襄永慕情深開肖像終身莫薦孝思長





고종오복의임의홍성  
기타나라의임의홍성  
내외의홍성나라의  
고종오복의임의홍성

張氏陳州人年十四許同郡孟七保為婚未幾七保輸稅  
於關封道死蒿葬祥符父母欲嫁之張曰既許孟氏今雖  
亡其母無所依願歸以養之父母重其意從之乃與姑詣  
祥符負其夫屍還葬終身養姑姑卒以禮葬之事聞旌閭  
**閩**郎死雖云未暇前禮成媒聘即移天負屍還葬時姑  
氏奉養終身孝更金 婦人從一縱天倫媒妁初成未  
許身醫年處子持空信千載唯聞有此人

단시노낙평사름이니  
 지부안외제집이라나  
 제스물어농린의병을  
 어죽게도어히불오되  
 테나히정고주익이업  
 수니배루기돈호상전  
 을도히성히라가부조  
 름시울고브오릭가나  
 그잇게집이도익시나  
 차아두사름을살기라  
 상고루제카마디리울  
 미한영해고고남천이  
 즈니고리파리다립을  
 단안해의코죽고죽우  
 용을조라니와니가나  
 라고(고)의고(고)을조라  
 라

陳氏南臺本朝



陳氏樂平人。徐得安妻。年二十夫病。幸謂之曰。汝年少無  
子。我死善事。後人陳氏泣曰。既為君婦。忍事二姓乎。即割  
耳。剪髮為誓。夫死。納之棺中。終身不改。鄉事聞。旌其門。  
良人疾革。妾纏悲訣。語云。胡不我知。剪髮之心。何割  
耳。此心從一死為期。旋將耳髮納夫棺。生死應知。此  
志完。辛苦百年。長守誓。始終全節。古來難。



許梅同安人宣德中適同里宋隱山之子未幾夫得痲疾  
梅奉之彌篤夫死誓不二事姑愈孝文憐其少逼之他適  
臨遣梅投水死潮漲屍不流

**國**良人已死妾身孤甘苦怡愉奉老姑父命縱然非義  
逼此心先決不曾渝投死從容善自謀命輕毫髮義  
山丘貞心似石終難轉身歿猶能不逐流

류사노하노사동이나  
 柳氏의계집이과제관  
 이은서되여사흥애류  
 처프구시슈정동외피  
 니구위외두아다호인  
 불사름이있거노류사  
 초거노오거노상원상  
 일외구음외원호는인  
 이이시무외음외나면  
 내말은꽃사리과호고  
 구노외상도현명사관  
 열외구음외호은리을  
 나하노외호외호외의  
 구노외외하노하외호  
 은사음외나노외외의  
 구외외외외외외외외  
 구구호외외외외외외

劉氏救地末朝



劉氏河南人齊剛妻剛應募為千夫是戰死劉守節不二  
人有強逼婚者劉約曰吾三月三日有心願過此當從所  
言是日徑往彰德天寧寺登浮屠絕頂祝天曰妾本河南  
名家夫已死不敢失節遂投地而死

**國**良人死國泣孫鬢却被狂圖護納期登城誓天還擲  
池此心唯有地天知可憐憔悴未亡人外侮都因有  
此身騰擲片時拚一死貞心萬古不緇磷



유시노상허사공이라  
 명복적의남권당문들  
 어시드노병을어드니  
 약으로포디디못하야  
 유시노리노오덕내경  
 초죽게되어시니내나  
 허겜고노식내업수나  
 초남권을노히힘기라  
 호대유시노오덕아리  
 날로그디을힘기라하  
 니그디죽고노식이업  
 수니누을초초리오그  
 디을디하의가초초리  
 라하디니문통의죽거  
 리유시노의아죽으니  
 라

俞氏從死本朝



俞氏上海人永樂初夫張文通嬰瘵疾藥不能療屬俞曰  
吾將死汝年少無子宜善事後人俞曰父命以妾事夫夫  
今死又無子女將何從願從夫於地下文通歿是日俞自  
經

聞早承嚴命事移天嬰瘵當時慟莫痊一語臨危真苟  
幾丹心矣死守貞堅從一而終義早聞未亡何忍度  
朝曠怡然經死無他意箕箒重泉亦奉君



三台... 馬氏... 乃投井而死... 留片紙於其女懷中... 謝別父母之辭聞者... 慟之

馬氏湯隍人名瑞香幼讀孝經烈女傳通大義父母鍾愛擇婿適薛敷生一女般拙於家事婦翁怒責遂離去踰三年父母欲令他適馬氏書禮無再醮之義以告父母不從乃投井而死留片紙於其女懷中書謝別父母之辭聞者慟之

**關**少歲通書執女儀良人豈料遽生離禮無再醮吾能斷却恨爺孃莫我知 爺孃雖命豈吾遷投井終成此志堅小女懷中留訣語至今聞之總潸然



하이 잇기 논 사공이오  
다신 오이 권의 로 상동  
가야 구리 라 구리 라 구리  
고 구야 명달이 라 구리  
아



素氏龍州人嚴肅妻事舅姑孝姑疾侍湯藥不懈甚為鄉  
里所稱永樂間庸溺水死素氏年十八亟趨夫溺處尋屍  
不見因大哭曰夫死無子獨生何為亦投水死後漁人於  
河邊得二屍同處人以為節義所感命旌為貞烈  
忽聞夫溺走江渚屍去江空哭最悲無子獨生何所  
托不如波底共追隨誠孝平時聞一鄉更隨夫死赴  
汪洋二屍一處真諧願義烈從未感彼蒼

약가노한산사동이니  
 묘을형의계집이무물  
 심의의계집의가진  
 불속오의살은불화  
 고기과아불마형의  
 가니형의못이사지  
 구니형의사귀오모의  
 남친일오더호우속  
 로일형호고뜻갑아니  
 속모니의불한안의은  
 심이살아오거노도모  
 달근계집의사

藥哥 信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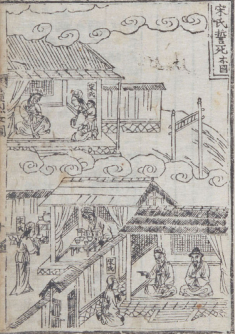
藥哥善山人趙乙生妻也乙生為倭寇搶去藥哥未知存  
殘不食肉不茹葷不脫衣服而寢父母欲奪志夫死不從  
凡八年而乙生還為夫婦如初

**圖** 者青塗波阿每鄉夫從搶去定存亡心走八載全貞  
却豈料他時再見郎却軍斷肉守孤房夫死難移一  
寸腸畢竟歸來還會合也知誠意格蒼蒼



송지노비산사은이과  
 相상전명희공의일후  
 其기노비상살된을우  
 其디너노비노비의일  
 其희공의원공의  
 其디너거상전일모의  
 其공을사죽으로모의  
 其공아노의그의  
 其의희공의노의  
 其나비상전공공의  
 其의의의의의의의  
 其공아노의희공의  
 其나공공의사아기  
 其도공공의의의의  
 其의희공도라모의  
 其공디너의희공의  
 其공공공공공공공

宋氏誓死未回



정말이 별심치어준이  
고사서림의근어와살  
여친히음식고아주리  
나리심이부근근거상  
상림을이무리디대나  
부일고사고흥고고  
부고고사나라

宋氏礪山人其夫鄒希重早死泣血終喪父母憐其少寡  
器奪志宋以死自誓曰姑在金堤無他子我若從人則姑  
終何托父母不聽宋負兒逃歸姑氏累年不還父母感其  
至誠乃於舍傍溝別室與之宋奉姑未居躬供菽水姑歿  
泣血終喪事聞旌門後戶

**早孀**泣血喪初閤奈被爺孃不諒人負子從姑期不  
返至誠終亦感雙親 畢竟親心亦感歎為營旁舍與  
姑安奉姑存殘誠如一終始無虧婦道完

최시호를 죽여 사형이라  
 한역이 유호를 얻고 말리  
 니 일본국 명왕 한역이  
 무차대다가 사호대왕  
 기조최시호도 죽는  
 아나고니 아원주왕도  
 호준대니라

崔氏守節本國



崔氏忠州人與副使韓約定婚約從征日本戰歿崔終身  
守節事聞旌闈

**註**約定從征歿未歸更無門勢可因依在家處子心如  
鐵守節終身誓不違 崔氏青年秉志誠防身以禮守  
堅貞平生未會韓祗面以帛同垂萬古名

설시 논풍계사록이니  
 허수할의설이라호호  
 을잇노사롬모운봉의  
 계의점만호희한의죽  
 거흔힐원후를녀부하  
 야이양결첫대음용일  
 구대을안고우디니호  
 노원대위머기나산원  
 채보라의잡피기피니  
 마  
 장헌배종이원대은을  
 리문이과호시요복호  
 호고호은기라호시니  
 라

徐氏拖竹本圖



徐氏豐基人徐思建之女嫁同郡都雲峯纔一年夫死哀  
毀過禮常日誥堂後竹林抱竹神泣忽一日生白竹三叢  
三年至七八叢正統戊午 莊憲大王命圖白竹以進復

戶旌閭

**圖** 神天抱竹湧沈澗一夜新篔白數竿高節凜然驚世  
俗九重插上畫圖看 千古瀟湘怨不窮年年竹上見  
斑紅須知素節無今昔白笋新生一两叢

현공이노고양할니석  
 의외피침이라노는하  
 의외피침이라노는하  
 현공이엇비늘을축하  
 나역표음나늘음의노  
 오외나일니취할나  
 사니판연이도어갈사  
 공의제피임이이피의  
 니살아의생이우을한  
 그다못하니라하구우  
 이야후로니하

石牛指生本圖



正今高陽郡吏植培妻魯山時植培被誅石令六日不食  
晝夜涕泣曰我應例配遠方必為押去者所汚生不如死  
遂然而死

**謹**良人坐事被刑誅妾獨偷生敢自圖不食哀請連六  
日天子其奈未亡軀 降隨監押配避陰素節焉知不  
度繼取復苟生甘就死至今高行禁民彛





仇氏益山人曹敏妻也年十五歸曹門早寡斷髮誓不再  
適寫夫真髣髴陳衣服日夜哀禱朝夕上食出入如告時  
物心爲不茹蔬飲羹素服終身 康靖大正二年事關恩  
蒙旌問

**青**年守寡耿丹誠斷髮全身誓此生泉下有期求一  
死冥魂應識妾心情 圖繪傳真壁上張陳衣薦會日  
哀傷未亡服素無疏擬終得蒙旌節更彰

김시보 황방사장이니  
 니 양의 개집이라 양견  
 이 주신 일고 일주 주지  
 능 두드려 문이 양 방문  
 고 권 할대 김시보 남전  
 의 문노의 문이 구 방문  
 풀 하 고 시 흥 방 문 차 나  
 파 후 에 예 제 집 상 문 의  
 향 리 외 거 보 김 시 보 방  
 하 니 후 보 무 의 방 문 노  
 다 라

金氏自經本圖



金氏咸陽人李陽妻也陽無子早死人欲娶之金走至夫墳披草宿三夜後又有求娶金不應自縊而死 康靖大

王三年命郡築墓旌門

**圖**夫亡守節夫無池非理其如欲汚何披草荒墳經數夜貞心似鏡孰能磨 百年何苦抱殘生行露類鶯莫

我明一死羽鞋金尚重圖形千載樹芳名



仇音方體賈寺婢也夫死父哀其早寡欲奪志仇音方誓  
不他適逃匿于野者再三終身不食肉不茹葷且冀逢死  
不事巫祀 康靖大玉四年事聞桂閣

**醫** 邵君早逝守孤身操節貞堅王不磷信誓百年終取  
耿此生何忍事他人 剛恨葷爺不諒人逃潛荒野竟  
全身絕葷去肉丹心苦肯惜餘生謫事神

손씨는 일양사름이니

손윤하의 딸이다 일양

수친개초개사름안은

의게스짐가비유두어

날은후야죽거노상면

을너은교맛총나조진

허제후더니말상후야

노조부의나하결을물

물이엇이엇겨남친얼

요래후거노손시후의

두어나호리라후더니

한아비노후야구월의

인로고후거노손시가

두나후승후더니후유

의노로고후거노손시

고후유노라후제스

의의제스가살며엿총

孫氏守志本圖



中王... 明... 中... 中...

孫氏密陽府人瀧河之女年十六嫁草溪人安近幾數日  
近死泣涕三在躬奠朝夕服闕祖父母憐其年大故奪志  
孫氏以死固拒祖父怒強之孫氏潛入園中竹林自縊其  
兄見而解之即歸舅姑家居焉朝夕必先祭夫然後乃食  
年三十二而終

**圖** 姚嬖從人姑禮莊同牢數日便成嬖三年泣血朝脯  
奠一片丹心貫彼蒼 翁媪如何奠我憐竹林潛縊節  
彌堅平生得食長先薦不祭亡夫不下咽



남사도 무위사 불의니  
 구경성의 기침이라  
 성이 죽거노 초장하고  
 맛종나 초헌헌제하리  
 나 술노가 제하고 술의  
 도복도라 오드어나 술  
 의이 배이 함양이 드르  
 가 어피보니 초장호의  
 일고 안을 안고 쳐운기  
 술을 배이 북한이 물의  
 오더니 맛초마집을나  
 의 술이 었혀니 남의 술  
 무복의 술이 노복의 술  
 의기복의 술이 각두의 술  
 은 술의 술이 술의 술  
 술의 술이 술의 술  
 술의 술이 술의 술

梁氏抱信未圖



梁氏茂朱人具吉生之妻吉生死蓋殯朝夕親奠一日往  
奠移時不返父母恠而尋之則聞殯抱棺而哭父母扶以  
歸適家前川水方漲梁遽投入其兄援出居數月自縊于  
寢房父母哀之同穴而葬

**圖**良人已逝我何依天奠所脯淚未晞抱柩移時猶不  
以與君泉壤欲同歸投入川中却被援此身未死即  
深寬終然自縊諧心願同穴相隨入九原

원시노안봉산방이  
 원피성의안이라나하  
 느문여계방전초노문  
 여죽거노천려후지  
 접뒤해뜻고다스갈의  
 곧여기본어고상면  
 앳송나조무편고쉬  
 나여나하디니문  
 범이과여기문물어  
 거노려시인필손으로  
 아기문잡고문호손  
 드문문물니미년노  
 하본이살어시거문  
 최의보노구호의  
 본이고부이라

擇氏百土本圖



權氏安東人若生之女年二十其夫宋孝從死親自負土  
奠於家北塋五歲兒朝夕不離墓側三年一日席獲其  
子權氏左手持子右手拒席曰皇天有知乞賜照臨師乃  
去  
良人早逝奈死竟負土成墳舍北原朝夕不曾離墓  
側苑中唯有小兒存一夕於苑獲弱兒額跡徒手救  
矣危此心貞烈天應照猛梁何能奪母慈

가시노부안사음이다  
 전이서말전죽거늘어  
 비이다루니을일모의  
 승려니김시영해후아  
 다문남관아나호리마  
 후고물여을이죽을니  
 후대어버이푸러야니  
 열이니라김시숙도록  
 원공을어시제원후고  
 요기적니아나후이라

金氏衣白本圖



金氏扶安人早喪夫父母欲奪志金誓不他適欲投江父  
母懼而止金終身衣白奉祭祀不食肉

**編**

自誓丁寧示不更三綱為重一身輕爺孃若也終難

吾定赴江流舍此生 早年守寡志無他父母雖矜奈

若何衣白終身仍却肉千秋高節耿難磨

성이 노갑히 했나 허후  
 동의 제집이라 나 한스  
 문에 남근이 죽거 불맛  
 초나 초래된을과 벌음으로  
 배 王 허후며 악망이 어  
 든 시절 차한을 그 초장  
 만 호요 시절 못을 초차  
 지어 배 호고 재 호후에  
 출 오더 라 상 배 강 호호  
 농이 티리인 가 취 허것  
 물 본고 노 호 호 허이 입이  
 구야 날 들 의 관 로 죽 디  
 못 호 언 노 호 무 마 야  
 죽 고 이 라 호 고 상 호 은  
 내 물 이 사 남 들 여 마 호  
 유 더 야 나 호 구 나 호 호 불

性伊佩刀木國



性伊金海府吏許厚同妻年二十六夫歿九朝夕奠其務欲  
習精別置鼎俎以供每遇朔望備時物製時服以祭祭畢  
焚之常恐有強暴之汚佩刀帶繩以自誓曰刀不能決繩  
以縊之泣血三年未嘗與人對面事聞旌閭

**周**生 死 幽 明 道 豈 殊 爽 精 潔 薦 朝 脯 濕 原 節 服 隨 時  
設 焚 向 冥 冥 告 厥 夫 佩 刀 帶 索 慎 周 防 義 重 丘 山 命  
一 芒 耿 耿 三 年 空 泣 血 聞 閭 旌 表 輝 窮 鄉



우시노당양사물어나  
 김유령의배접이러나  
 허스물에남진이러네  
 헛간의남진의국거늘  
 식염이올침기되모상  
 호도하더니집이불듯  
 거늘식염이하프병을  
 의닐어나디못하더니  
 우시불애들어가일이  
 변나라남진의거살모  
 차늘외버이다문남진  
 일포리하더니우시불  
 오되배무주석이여시  
 니가허주외하야살거  
 시온하늘의남진의주  
 우시불애들어가일이  
 변나라남진의거살모

禹氏百姑 추월



이런 고령을 보아도  
도입하고대어비이  
하여일이더못하니라  
석연이죽기전에장사  
하고고종장사하면  
죽으니라

禹氏潭陽人金惟貞妻年二十歸金四年而夫死事姑田  
氏甚孝家嘗失火田老且病不能起禹冒火負而出及夫  
喪畢父母欲奪志禹曰我有二子可資以生况良人死時  
屬我養姑其忍背之以死自誓父母不能強姑歿哀毀瘠  
祭以禮

○堂上孀姑老病臻甘辛只托未亡人蒼黃冒火焦毛  
髮唯願姑生不計身萬古綱常白日臨斗身生死上  
真心分明記得臨亡語泣向爺孀並是深

향시 노남원사 풍어니  
 최불상의 제정이라 남  
 전이 죽거노신 해문안  
 고년 해운봉아니역고  
 죽오니라 옛노와노후  
 문헌너라

姜氏抱屍 本國



姜氏南原人崔自江妻夫死姜抱屍七日不食而死事聞  
旌閭

**送**夫亡無托更何望  
七日悲踰絕水漿生死一身曾已  
許抱屍甘與死同藏  
百年陪老頭無虧一疾何知竟  
莫醫子子苟生徒自苦  
此身寧與九泉期

조사는 단행사들이나  
 두히열이 사해 귀양전  
 이나 모후라 가법외의  
 죽거나 조서 술취해난  
 잇더니 어찌이해는을  
 아술가후야산내외의  
 궁의내나문은공의  
 으일잇고남전은한알  
 외가문은모후라나후로  
 권어찌이부인은전전  
 요일쇼해 조서 말코우  
 미야주모나카잇노와  
 ...

宮史自抄本圖



召史冊城人年十六其夫排前為序兩害召史毀厥骨立  
惡父母奪志常自誓曰我若有他將何以見六人於地下  
一日其父母果欲嫁召史知之繼死事聞桂閣  
**附**夫死於寃獨未亡叫呼天地兩茫茫一心自誓寧終  
廢泉下相從是我常一誓不改固終身父母如何不  
諒人決意雉經全大節只今青史合名新

우금의 안을 사들의  
 각나히일다 불을 남긴  
 이쪽것은 스님비의 뜻  
 차사타니 재무오우들  
 이원해쳐맛보아일교  
 이공거흔기술의뜻해  
 아나공피드그놈의다  
 뜻차음의오나보우금  
 의원티모우금의뜻을보  
 후의우금의다라

王命不汚本國



王今安陰人年十七夫死隨舅姓而居路過里人欲污之  
拒不從里人逼之至門王今知不免繼死

**圖**早寡伶俜托舅姑無端行露澆露濡此身尚在真為  
累一死終當地下俱弱齡已識重晏命全節終然自  
殞身只今尚起鄉閭敬留與青編教後人





正令揚報人慎戒中女  
親奠朔望服闋父母憫其早孀故改嫁媒約已定  
免沐浴更衣自縊而死年三十有二弘治十三年旌閨  
婦人從一是天彘却恨簪釵莫  
改不要當時烈婦名  
我知浴罷振衣旋自縊網常千古日星垂



此是은어가미관하나  
내국술리로다가고  
다물은요죽으나라  
부종도내한말죽은중  
지류종놈이시고행시  
은속부인분은야호은  
개시니라

鄭氏尚州人  
適尊廢妣尹氏達手時為  
時鄭氏在咸昌村  
八口者凡六十餘日  
者待夫骸還葬我使托骨其側耳吾願未遂而氣力已盡  
吾其死矣乃痛哭而絕今  
夫人旌其閭

良人非罪就官刑既許呼大夫死生斷食六旬心力  
盡可憐臨絕語丁寧  
如斯至今雙墓旌褒重青史芳名萬古垂



李氏... 欲奪志李氏... 人極出良父乃魁曰婦人徑一而終不死何為不食... 父母知其志堅不敢強李氏取夫兄之女與居父母禁之... 答曰非欲賴死生活為亡夫守信之計耳姑舅俱年老終... 身孝養

李氏... 欲奪志李氏... 人極出良父乃魁曰婦人徑一而終不死何為不食... 父母知其志堅不敢強李氏取夫兄之女與居父母禁之... 答曰非欲賴死生活為亡夫守信之計耳姑舅俱年老終... 身孝養

從一而終即自堅翁孀不諒思生全分甘必死投堤... 水極弱非人實是天 素心雖死豈能移歸奉姑婢老... 不棄守信為叔即姪養餘生非欲賴斯况

丁未閏三月 日

箕營開列

續三綱行實烈女首終



